

제 2 차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비상)

—91년 5월 2일 오후 5시30분 학생회관 휴게실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 토론 제안서

따뜻한 4월의 햇살이 마음을 들뜨게 하더니 지금은 스산한 바람이 왕산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산한 바람은 연이은 비통한 소식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푸르른 하늘에 눈이 부셨던 26일, 명지대 앞 대로에서는 경대의 처참한 시신이 누워 있고, 이제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외치다 산화해가신 선배열사들의 원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강경대 폭력 살인 노태우정권 규탄 집회 도중 가슴에 맺힌 분노를, 슬픔을 승화시키듯 온몸에 불길을 당겼습니다.

박 승 희 학우!

불감증과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지만 명지대 학우의 죽음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일상의 제자리로 안주해 커피.콜라를 마시는, 열사를 죽인 적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미국반대, 학살정권 노정권 타도” 그 피맺힌 절규가 전남대 캠퍼스에 젖어 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 <한계레 사회문제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던 애국일꾼 김영환씨가 자취방에서 고문의 흔적이 있는 의문투성이의 변사체로 발견되고, 규탄 집회 도중 수원 경희대에서는 짱돌에 맞아 눈과 의식을 잃은 학우, 제주대에서는 3명의 학우가 4층 옥상에서 추락, 중상이후 연행, 연세대에서는 지랄탄을 피하던 여학우가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남단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입니까? 만약 오늘 아침 한계레 신문에 실렸던 연대 김동길 교수의 발언처럼 (4판 14면) 선배의 배후 조종에 의한 시위 참가와 그에 따른 우연한 죽음이었다면 분단이후 계속되어졌던 4.19젊은 영령들과 5.18원혼들 그리고 이 한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백, 수천의 젊은 청년들이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학생 대표자 여러분!

이것은 명확히 지금의, 아니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정권이 우리 4천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상품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이것 뿐만이 아닌 더 많은 문제들이 과연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권이었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지금의 시기는 통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대의 부모님만의, 승희의 친구들만의 영균이의 친구들만의 통곡으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각지에서는 5월 1일 헤아릴 수 없는 국민들의 향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의 구호는

“살인정권 퇴진하라!” 였습니다.

이 긴박한 정세 속에서 총여학생회 운영회의에서는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성상품화 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여성주간”을 연기할 것을.

이것은 여학우들의 이해를 저버리고 정치투쟁 위주의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학우들은 무엇을 가장 바랄까? 하는 고민속에서 강경대 학우의 죽음에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여학우들은 우리에게 그 슬픔과 분노를 조직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원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성상품화 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여성주간”이라는 사업은 그 원래의 의의와 목적이 지금의 변화되어져 있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틀로써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 대표자 여러분 2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금의 정세와 여학우들의 변화된 이해와 요구에 대하여 깊이 토론하고 올바른 대안을 내오도록 합시다.

저희 총여학생회 운영회의(단대 여학생부장단) 속에서 또하나의 대안에 대한 제안은 준비되고 있는 일일잡집의 성격을 변화시켜 치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아직 커다란 실천을 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여학우들이 작은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틀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제안도 깊은 토론 속에서 대표자 여러분이 올바르게 고민해 내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책임지고 생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대표자 여러분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며 토론 제안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정세 토론 속에서 여성주간의 일정문제를 논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예:백골단, 전투경찰 해체)과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토론 하셨으면 합니다.

<5월 일정>

- 4일 오후 3시 성남시청 — 1일에 이은 2차 국민대회
- 5일 서울 한양대학교 — 어린이 한마당(탁아위원회)
- 7일 여성주간 변경 행사 (예정)
- 8일 용성총련 동시다발 영화 상영 — “어머니 당신의 아들”
- 9일 5.9민자당 창당 1주기 규탄 3차 국민대회
- 11일 강경대 열사 장례식 (연세대)
- 13일 - 18일 신장호 열사 추모기간 및 광주항쟁 계승주간
- 24일 - 26일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출범식(부산대)
- 27일 - 31일 대동제(예정)

*춘계 농활 기간 미정

하나되어 주인되는 제 3대 총여학생회

성폭력

-이땅의 여성들은 참으로 다양하고도 극심한 폭력 아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여성에게 대한 국가나 제도 혹은 개별적 남성이 가하는 행위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든 정신적, 물리적 침해행위이다.

2. 성폭력은 무엇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현상화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엄청난 성차별 사회이며, 이러한 남녀간의 성에 있어서의 차별은 남녀간의 차이를 차별화하여 보다 강고한 지배집단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수 지배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되고 그 수단으로서 '성폭력'이 등장하게 된다.

성폭력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한 사회 체제내의 사회적 가치규범 또는 관습, 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신적 형태로서 폭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리적 강제력의 모습(강간 등 성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집단적이고 사회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리적 힘에 있어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외견상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서조차 그 본질로 들어가면 사회적 성격을 띤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문제는 그 사회 여성의 현실과 그 현실을 배태하는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속해, 성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수행, 유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따라서 성폭력은

---가시적 폭력 그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 그것으로 인한 태도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

;가정내 구타, 강간 등 성폭행, 매매춘, 인신매매
---불가시적 폭력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사회에 만연하는 제도적인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 온존시키기 위하여 소비에서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문화, 정책

7. 물리적 성폭력
---강간 등 성폭행, 폭언
(사례 뒤에 첨가)

이러한 폭행 및 강간이 한 개인으로부터 침해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필연화되는 사회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회구조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왜 그러한 불평등이 필연화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외태선진국의 주도화에 이루어졌다. 미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주도된 신식민지적 경제체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국내의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값싼 노동력과 저국가의 정책하에 구력했으며 농촌 청년들의 도시로의 이동과 청년여성의 공장취업을 강제하였다. 이와 함께 소수 매관자본가들은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온존시켜 여성을 예속시키고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의 결과로 여성을 다스리기 위한 폭력이 횡행하게 되고, 여성의 성을 미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인간적 저임금에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ㄴ. 가정 내 폭력 -- 아내구타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42%이다. 더욱이 가난한 여성들의 경우는 70%가 남편의 구타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 1983년 통계) 남녀의 성역할이 고정되면서 모든 수입의 원천이 남편의 벌이로 유지되고 이런 경제적 의존성은 여성을 전인격적으로 남편에게 예속시켜 복종적으로 되게하고 여러 비인간적 대우를 참고 견딜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관계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는 전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정내의 구타는 사회문제로 제기되지 못했다. 이는 폭력적 사회,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는 가부장제적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며 가정내 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적 폭력성의 해결과 함께 해 나가야만 진정으로 가정의 민주화,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 및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회를 이룰 것이다.

ㄷ. 인신매매와 매매춘

인신매매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를 증가하게 하는 매매춘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선 매매춘을 조장하는 국가정책의 문제, 둘째 경제적 빈곤, 셋째 퇴폐, 향락적인 문화 풍토등을 들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70년대 이후 외자 주도형 수출경제 구도속에서 자본회수율이 가장 빠른 3차 서비스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기생파티로 특화되는 기생관광의 정착이다. 이러한 수요와 함께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 정통성 없는 정부가 소수 지배자의 이익을 위한 국민통치를 위해 우민화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3S정책으로 불리운다. 이러한 수요와 사회문화의 영향이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며 빈곤과 성차별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매춘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자주없이 순결없다

기가 올라가 성조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부러움 속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던 미국의 수영선수가 도둑님일 줄이야. 도대체 그 미국선수와 코치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장난으로 한번 훔쳐왔다”고 얼버무리는 것일까. 한술 더 떠서 미국신문에서는 “벽돌 한 장 옮긴 걸 가지고 생난리다”라고 보도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얼마전 고위층미군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입산부를 발로 차고 때린 것과 택시운전사에게 총을 들어대고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도 다 “장난으로 한번……” 해봤다고 할 참이던가.

역사에 길이 남을 올림픽이라고 흥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오천년 역사를 외국관광객들에게 마음껏 자랑하자고 떠들어대지만, 올림픽의 진행과 더불어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인들의 방자한 태도는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깡그리 몽개버리고 있다.

『허슬러』라는 미국잡지의 서울올림픽특집을 한번 보자. 기사제목은 “올림픽 관광객을 위한 코리안 섹스 안내”. 차마 낫뜨거워 전문을 옮기진 못하고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몇 대목만 적어보면,

“올림픽 경기를 보러 서울에 가는 서구관광객들은 매혹적인 어린장녀들을 발견하고 경이에 찰 것이다. 그들은 푸줏간의 세일가격밖에 안되는 15달러(11,000원)와 약간 더 팁을 받고 한껏 충족시켜준다.”

“성의 도원경인 이태원은 편리하

게도 남서울 올림픽경기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지하철 4호선이 여기와 연결된다.”

“강 건너 경기장에서 무엇이 행해지던간에 진정한 올림픽은 바로 여기서 진행되는 섹스파티이다.”

분한 생각에 거짓말쯤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정작 이태원 거리에 나가보면 올림픽관광이 아



88올림픽 홍보사절단으로 자마이카에 파견된 학생들. 총독은 남자들을 여행내내 ‘찬밥’이라고 불리게 했을 만큼 한국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라 매춘관광이라 할만한 쌍성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정부는 요염한 여자들을 내세워 올림픽을 홍보하고 AIDS 검사 대신 선수촌에 콘돔을 자그마치 4만개나 푸는 등 사대주의적 매춘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한민족의 순결한 문화를 짓밟는 주범은 이 잡지에서조차 인정하듯이 “미국의 침략주의”이다. “한국인들은 불운하게도 최근까지 미국과 유엔의 「평화유지군」 등 침략적인 군인들의 도발을 받아들였다. 침략자들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긴 혼혈아 집단과 성병과 같은 끔찍한 기념물을 남겨놓았다.” —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침탈은 성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그들은 한국의 자주성을 부정하려한다.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선수단이나 IOC위원들의 오만불손

한 태도에서부터 막무가내로 협박하며 밀고 들어오는 수입개방압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네의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식민지의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민족은 이미 일제때 소위 정신대라는 것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태원의 여인들을 주한미군의 ‘정신대’라 부를 수 있다면, 외국의 성침략으로부터 우리 여인들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은 바로 외세의 모든 침략을 거부하는 전 애국민중들의 몫이라 하겠다.

2. 제도적 성폭력

첫째. 직종 직무를 분리하는 방식

남녀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직급 및 승진의 차이를 둔다거나 작업 배치를 호봉을 달리 한다거나 여성을 특정노동력으로 묶어 여성에게 차별적 저임금을 가하는 것 등이다.

둘째. 고용에서의 차별

여력제한, 미혼여성, 육모 단정 등의 차별적 문구와 대졸자는 뽑지 않는다 거나

셋째. 차별임금

남녀고용 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형식적 법조문에 불과하며 그 강제력이 미약해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보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청 위민실서 부녀자 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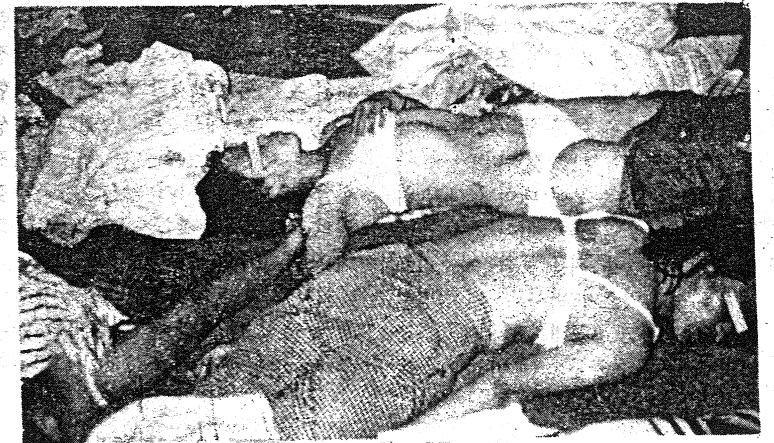
청주에서 남편들과 임금인상 투쟁을 하던 부인들이 공직자들에 의해 옷까지 벗기우며 시청 앞마당에 내동댕이쳐졌다는 소식을 듣고 청주로 달려가 보았다.

청주시청 위민실에서 농성하던중 끌려 나오면서 당한 폭행과 충격때문에 10여분의 아주머니들은 청주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아주머니들은 당시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하나 같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셨습니다. 겨우 용기있는 아주머니 두분을 모시고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청주택시 연합노조의 조합원들은 88년 협상안이 87년 협상안에 비해, 노조활동제한, 근속수당삭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임금 체자리 등 개선은 커녕 더 열악해진것에 맞서 6월 2일부터 총파업을 벌여왔다고 한다.

“총파업을 하여도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자 남편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굶는 남편을 두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지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편네들이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면 만큼도 오르지 않는 88년 협상안은 너



무나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모여서 시청 위민실로 몰려가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정의 적극적 중재를 요구하며 농성하였습니다.”

단식하는 남편의 고통을 새겨가며, 시청 찬 바닥에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목소리를 높이던 아주머니들은 결국 18일일만에 무참하게 끌려나오며 그들 바램이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당일날인 7월 8일 밤 11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여자들의 옷을 벗기고 멍석말이 하듯 담요에 말아, 시청앞 시멘트 바닥에 물건

던지듯 내던져 버렸던 시청 직원들의 만행은 아주머니 한분 한분에게 너무나 치유하기 힘든 충격으로 새겨져 있었다.

“여자의 몸으로 300여명의 남자, 그것도 공직자들에 의해 불꺼진 시청안에서 벗기우고 짐승처럼, 물건처럼 내던져진 우리들. 아직 몸과 마음이 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남편들의 투쟁이 승리할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만행에도 우리의 정당한 외침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말씀에는 서릿발 같은 결의가 담겨있었다.

4. 공권력에 의한 폭력

첫째. 민주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찰의 성폭력

둘째.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구사대, 백골단의 폭력
구사대는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 사무직원이나 반장급 생산직 관리자, 물질로 회유된 비농성자, 계열 기업의 관리자나 노동자, 캠페등 폭력집단 그리고 청원 경찰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여성들이 그들의 생존권 확보 투쟁 과정에서 남성 관리자 및 남성 노동자들이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본질적인 노자간의 모순을 남녀관계로 위장, 투쟁의 목표를 흐리게 하면서 전체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5.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 문화

4. 성폭력의 발생 실태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25만번의 강간이 행해지며 이중 24만 5천건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 1990년 신문발표와 같이 성폭력은 한국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첫번째 원인이 되고 있다.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성폭력은 여성을 소극적으로 만들며 자주성 발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